

종자란 무엇인가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촬영 현지지도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이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자는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문예학적 범주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종자의 본질과 특징을 서술할 수 없다.

문학예술은 산 인간과 실생활을 그리는 것을 본성적 요구로 하는 인간학이다. 인간학인 문학예술작품에는 산 인간과 실생활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진다.

현실 속에서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에 대한 생동한 화폭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예술작품은 산 유기체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유기체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나 생기와 활력이 차 넘치고 있다.

한편의 문학예술작품을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 넘치는 생명의 핵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시켜 나가는 기본요인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작품창작을 위하여 관건적 의의를 가지

는 원칙적 문제이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문예학적 범주로서의 종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려면 종자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것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작품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과 요소들의 본질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것들이 작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작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여야 한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기본성분으로, 주되는 형상요소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기본성분, 형상요소로서의 종자는 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적 형상의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종자가 작품의 다른 성분들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 문학예술작품에서 종자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문예학적 개념으로서의 종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지는데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종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종자가 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작품이 종자를 중심으로,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종자가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를 핵으로, 기초로 하여 구성되며 창조된다.

현대과학은 모든 물질이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속성들과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전일적으로 통일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모든 물질, 유기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무기물질조차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문학예술작품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나도 당연하다. 핵에 의하여 물질의 성질과 특징, 그 구조와 존재방식이 규제되는 것처럼 종자에 의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성격과 특징, 그 구조와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이 규정된다. 그리고 핵을 똑바로 파악하여야 해당물질의 성질과 특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듯이 작품의 핵을 이루고 있는 종자를 똑바로 인식하여야 그 작품의 구조와 특징, 창조과정의 특성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완전히 들어맞는 비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문학예술작품을 일반물질에 비교한다는 것이 꼭 적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모든 사물현상은 그것이 고급한 것이든 저급한 것이든 일반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물현상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존재하듯이 문학예술작품도 종자를 핵으로,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작품의 핵을 이루며 작품의 기초에 놓이면서 작품의 존재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종자이다.

문학예술작품이란 종자로부터 태어난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자로부터 식물의 싹이 트고 가지가 뻗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종자로부터 형상의 꽃이 피어나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조된다.

진정한 문학예술작품은 반드시 일정한 생명력과 사상에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란 다름아닌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고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며 기능이다.

고대희랍의 철학가이며 미학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예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썼다. 여기에는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깨끗이 조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한 지향과 염원을 가지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합리적인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진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한 사상적 지향을 가지게 하고 그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모든 형상요소들이 조

화롭게 배열되고 전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모든 형상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전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기초에 놓여 있는 핵이 바로 종자이다.

종자는 작품의 기초에 놓이며 작품의 구조와 존재방식을 규정한다. 종자가 없는 문학예술작품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며 사상에 예술적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원천으로, 기본요인으로 된다.

작품의 핵, 사상적 알맹이로 되며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가치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종자는 소재, 주제,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은 서로 다른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에서 그 지위

종자론

종자란 무엇인가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이다
종자는 형상의 원형이다



도 다르고 기능도 서로 다르다. 작품의 형사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놓여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소재와 주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작품의 주제와 사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작품이 기초하고 있는 생활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그만큼 소재와 주제, 사상은 문학예술에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다. 소재와 주제, 사상, 이 문제들을 옹계 해결하는 것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나 창작된 작품들을 연구하고 분석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형상의 기본요소들인 소재와 주제,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 이것은 작품의 소재와 주제, 사상이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며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창작실천에서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는 문제도, 주제를 설정하고 풀어 나가는 문제도, 사상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문제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재와 주제, 사상 등 형상의 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그것들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는 데 작품의 핵,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종자가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종자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는 것을 그것이 이 세 요소들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종자이론을 해설한 글들에서는 종자가 마치 소재, 주제, 사상만을 규제하고 그밖의 다른 형상요소들은 규제하지 않는 듯이 서술한 편향을 발로시켰다. 이것은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이해를 가질 수 없게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핵,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작품의 생명력을 실천적으로 담보하는 기본요인인 것만큼 그것은 소재와 주제, 사상을 비롯하여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한다. 여기에 바로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이 종자를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하여 구성되며 창조되는 것은 합법적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 인간의 사유활동은 일정한 중심을 가지고 진행된다. 논리적인 사유나 감성적인 사유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사유는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초점과 중심을 가지고 있다. 초점과 중심이 없이 진행되는 사유는 목적지향성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뚜렷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한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자연적 현상에 과학적 사고를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사유활동이 중심,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인간의 사유활동의 창조물도 중심,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에는 창조자의 기본의도, 기본지향이 체현되며 그것이 핵, 알맹이를 이룬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종자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모든 대상물들에 고유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상 철학이나 경제학, 역사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학분야에서와 출판보도분야에서도 종자이론이 적용되고 있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종자가 문학예술에만 고유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녀대상의 핵으로, 알맹이로 된다는 점에서는 문학예술에서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문학예술에서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문학예술에서의 종자는 창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 낸 생활의 씨앗이며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구별된다. 종자는 생활 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 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 이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은 생활의 형상적 반영이다. 생활을 떠나서 문학예술작품이 창조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작가의 사상미학적 이상과 현실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일적으로 구현된다. 작품에 그려지는 생활에는 언제나 작가의 사상적 관점과 미학적 이상이 담겨져 있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체현되어 있으며 일정한 인간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의 씨앗이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창작가에 의하여 분석평가된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는 데 문학예술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가령 과학논문의 경우에는 종자가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의 형태로 표현된다. 과학논문을 쓰는 경우에도 필자가 말하려는 사상적 알맹이가 뚜렷이 정해진 때에야 체계를 세우고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칼 맑스의 저작 <자본론>의 사상적 알맹이, 종자는 잉여가치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맑스는 <자본론>을 집필하기 위하여 모순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사회 경제제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연구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맑스는 잉여가치법칙을 발견해 내었으며 그것을 핵으로 하여 자본

주의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해부한 <자본론>을 쓸 수 있었다. 과학논문의 경우에는 필자가 논문에서 말하려는 기본사상, 기본문제가 종자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보다 형상적으로, 생활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산 인간과 실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낸다. 산 인간의 실생활로 차 넘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을 이루는 종자가 생활적으로, 형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소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는 이등박문을 죽였어도 침략자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종자에는 작품의 기본사상이 체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품에 그려진 생활의 정수가 구현되어 있다. 이 종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 안중근의 성격과 생활, 그의 활동을 그려볼 수 있게 하며 작품의 생활화폭에 대한 대체적이고 윤곽적인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흘러나온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논리적인 개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

따라서 그 어떤 명제나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는 방법으로써는 작품의 종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생활속에서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종자 자체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이다. 그리고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골라잡는 것이 과학논문의 종자를 골라잡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우며 더 많은 창작적 지혜와 재능,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종자의 발견은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 놓은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다.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기초에 놓이고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사회적 가치, 생명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틀어쥐고 나아가 할 근본문제가 명확히 해명되었다. 그러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왜 우리 시대에 와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학예술작품의 기초를 이루며 모든 형상요소들을 규제하고 통일시키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작

가, 예술인들과 문예이론가들, 평론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문제였다.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러저러한 견해를 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주제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라고 하였다. 주제나 사상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중요한 성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의 기초로, 핵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기초에 놓이며 모든 형상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그 사상예술적 가치를 제약하는 핵으로 되는 것은 종자이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인 종자가 어찌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발견되었는가? 사실상 모든 사물현상은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의 비밀이 완전히 해명된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물질을 막론하고 그 핵을 과학적으로 쉽사리 밝혀 내고 있다. 그런데 왜 문학예술작품의 핵이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해명되었는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선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밝혀 내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는 것과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은 산 인간과 실생활을 그리는 것을 본성적 요구를 하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산 인간과 실생활이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그려진다. 문학예술작품의 묘사대상으로 되고 있는 인간과 생활 사회현실은 끝없이 풍부하며 다양하다. 인간의 성격과 생활에는 전세계가 비껴 있다.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때 사람의 비문에는 그저 스쳐 버릴 수 없는 전세계의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인간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사상감과 정신세계가 반영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이 풍부하게 그려진다. 또한 작품마다 자기의 독특한 형상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작품의 형상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기초에 놓이는 사상적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볼프강 괴테에게 자기의 작품 《파우스트》의 기본사상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시인은 작품의 사상을 정식화하여 표현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파우스트》의 사상을 밝히려면 새로운 작품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비판적 사실주의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문학예술작품을 얼음산에 비유하였다. 얼음산의 작은 윗부분만이 보이고 기본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은 물 밑에 잠겨 보이지 않듯이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히 들어 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

다. 산 인간과 실생활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려진 문학예술작품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 있으며, 작품의 특성과 생명력, 그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해명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그 누구에게나 납득될 수 있게끔 종자를 규정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문학예술작품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을 도입할 수도 없으며 실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사유의 힘에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밝혀 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은 또한 우리 시대에 와서 사상적 알맹이, 핵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해 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원래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사상미학적 교양하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문학예술작품에는 일정한 사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가 체현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문예사에 기록되어 빛을 내고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내세웠으며 의의있는 사상을 구현하였다. 문학예술은 그 본래

의 사명과 본분으로 하여 사상적 알맹이가 들어있을 것을 필수적 요구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인류가 남겨 놓은 문학예술작품들 가운데는 사상적 알맹이, 핵이 뚜렷한 작품이 많지 못하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 이전 시기에 창조된 문학예술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문학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도 그러한 약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지난 시기 작가, 예술인들은 인간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적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창작생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그들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참된 생활의 길, 투쟁의 길을 예술적으로 정확히 천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 이전 시기에 창조된 진보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사상예술성에 감탄하면서도 거기에서 참된 삶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사람이 새 생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은 민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새 생활 창조에 불려일으키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임무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의 역할문제를 중요하고 날카롭게 제기한 문학예술은 인류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새 사회, 새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민중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낮잠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생활의 진리와 투쟁의 양식을 체득하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려면 사상적 지향이 뚜렷하여야 하며 제기한 문제가 명백하여야 한다. 보고도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작품들,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작품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며 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상적 알맹이가 뚜렷이 박힌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핵,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성, 문학예술작품의 내적구조와 존재방식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며 작품의 생명력과 사상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요인을 명확히 밝혀 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작품을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며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내기 위한 뚜렷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이다.

종자는 형상의 원형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문예학적 범주로서의 종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지려면 종자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함께 그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서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그 가치를 규정한다.

그러면 종자가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종자의 본질적 속성과 특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자가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작품에서 예술적 형상의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형상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종자, 이것이 진짜 종자이다.

창작가에서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형상의 원형으로 된다는 것, 이것은 종자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형상의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그 사상예술적 가치를 규정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를 기초로, 바탕으로

로 하여 창작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독자들에게는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종자의 본질적 속성과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형상에 대하여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상이란 문학예술에 고유한 본성과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문예학적 범주이다. 형상을 떠나서 문학예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학예술은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 구별된다. 사람들은 그 어떤 문학예술작품을 대하든지 무엇보다도 형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형상이 잘되었는가, 잘되지 못하였는가, 형상화의 수준이 높는가 낮지 못한가,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논의와 분석, 평가는 언제나 여기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귀착된다.

*** 흔히 문학예술부문에서 형상이란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문학예술이 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적 형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형상적 형식을 염두에 둔다) 다른 하나는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가리**



키는 것이다(성격형상, 생활형상, 세부형상 등을 염두에 둔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이라고 할 때 성격형상이나 생활형상 등과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총체적인 예술적 화폭,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 자체의 형상적 형식을 말한다.

종자가 형상의 원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작품의 예술적 화폭이 피어날 터전으로, 바탕으로 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을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다면 종자는 그 꽃을 피어나게 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씨앗으로부터 움이 트고 아지가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종자로부터 형상의 제반 요소들이 자라나고 예술적 형상의 꽃이 피어난다. 종자를 심어 놓지 않고서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낼 수 없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형상의 기본테두리를 예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생활에서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벌써 작품에 그려질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도 예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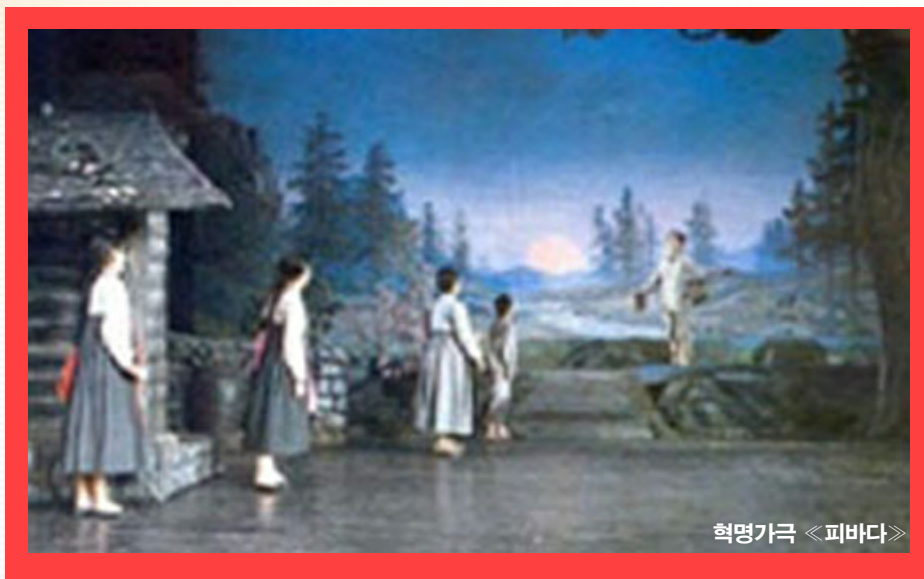
게 된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그려질 형상적 화폭의 기본테두리, 윤곽을 예상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다시 말하여 종자는 창작가에게 작품에 그려질 생활로부터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이야기줄거리 등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준다. 이것은 종자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형상에 대한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종자야말로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 창작가가 잡아온 종자가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체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과 허구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예술적인 종자라고 말할 수 없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은 작가가 일정한 사상적 입장과 미학적 이상에 비추어 인간과 그 생활을 그려 낸 결과 이루어진다. 작가는 인간과 그 생활을 맹목적으로 그



혁명가극 <피바다>

릴 수 없으며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가 생활속에서 탐구하고 발견해 낸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데 따라 문학예술작품에서의 형상의 질과 특징이 규정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는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창작가가 종자를 완전히 잡아쥐었다고 할 때에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장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고전적 명작 <피바다>의 종자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종자에는 작품이 내세운 기본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이 종자에는 일제의 살인적 만행과 야수적 학살이 판치는 참혹한 수난의 피바다, 원한의 피바

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적들과 맞서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일 데 대한 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명작이 내세운 기본문제이다.

이 기본문제로부터 일제와는 손에 무장을 잡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의 총체적인 예술적 형상이 흘러나온다. 간도 <토벌> 때 남편을 잃고 수난의 가시덤불길을 헤매는 어머니와 그 일가의 피눈물나는 생활정경, 생활의 시련을 거쳐 계급의식에 눈뜨며 아들 원남이를 유격대로 보내며 부녀회장으로서는 유격대를 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어머니의 성장과정 등을 보여 주는 형상적 화폭들은 작품이 내세운 기본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종자는 이처럼 그 자체 안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예술작

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된다. 종자는 또한 그 자체 안에 예술적 형상을 이룰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인물성격, 인간관계, 이야기 줄거리 등은 작품을 이루는 형상요소들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조화롭게 통일되어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지고 작품이 창조된다. 이 여러 형상요소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똑똑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창작의 기본요구이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을 이루는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된다. 그것은 종자 속에 작가의 사상 예술적 의도가 뚜렷이 구현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은 창작가의 사상 예술적 의도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 작품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려고 하는가 하는 창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물성격이나 구성, 생활, 사건 등 형상을 이룰 모든 요소들이 설정되며 그려진다.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떠나서 작품창작에서 형상요소들을 옮겨 설정할 수도, 그것들을 옮겨 그려 낼 수도 없다. 이처럼 종자는 창작가가 내세운 기본문제,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원형으로 된다는 것을 종자 안에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기성의 형태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

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와 사상, 인물들의 성격, 인간관계, 줄거리 등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마땅히 자위단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자위단과 관련된 생활을 그려야 하며 자위단에 끌려갔다가 뛰쳐나오는 인물들의 생활선, 운명선을 따라 작품이 꾸러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자를 핵으로, 기초로 하는 작품에서는 자위단에 들지 않으려는 인물들과 그들을 자위단에 끌어들이려는 인물들과의 심각한 대립과 충돌을 기본갈등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작품은 첨예한 극성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종자는 작품의 제반 형상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바탕으로, 모체로 된다. 진실로 예술적인 종자는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가능성과 지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된다면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종자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상은 문학예술에 고유한 본질적 속성이며 형상을 떠나서 작품을 생각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은 그 본성으로 하여 형상의 기초로, 바탕으로 되는 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어떤 작품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종자가 있다거나 작품의 종자가 어떤 작품에서나 다 뚜렷하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종자는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작품에 고유한

것이다. 생활을 왜곡하여 반영하고 고상한 사상을 담지 못한 문학예술작품에는 참다운 의미에서 종자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사상예술적으로 질이 낮으며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내세우지 않은 작품에서는 종자를 노하기 어렵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만이 종자가 뚜렷하다.

지난 시기 일부 문예학자들과 평론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종자는 마치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만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를 발로시켰다. 이러한 견해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자이론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시대 문학예술창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된 독창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종자가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한 문학예술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 종자가 뚜렷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자가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작품에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종자는 우리 시대에 창조된 문학예술작품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대에 창조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에도 있다. 우리 시대에 창조되었건, 몇 백년 전에 창조되었건 관계없이 인간과 그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적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는 작품에는 종자가 있기 마련이다. 종자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 사람들을

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된다.

종자는 또한 그 자체 안에 예술적 형상을 이룰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인물성격, 인간관계, 이야기 줄거리 등은 작품을 이루는 형상요소들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조화롭게 통일되어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지고 작품이 창조된다. 이 여러 형상요소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똑똑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창작의 기본요구이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을 이루는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된다. 그것은 종자 속에 작가의 사상 예술적 의도가 뚜렷이 구현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은 창작가의 사상 예술적 의도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 작품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려고 하는가 하는 창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물성격이나 구성, 생활, 사건 등 형상을 이룰 모든 요소들이 설정되며 그려진다.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떠나서 작품창작에서 형상요소들을 옮겨 설정할 수도, 그것들을 옮겨 그려 낼 수도 없다. 이처럼 종자는 창작가가 내세운 기본문제,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원형으로 된다는 것을 종자 안에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기성의 형태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

자가 그 질적 속성과 특성으로 하여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것이다.

이 종자 자체를 놓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구성 등과 같은 형상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뜻깊은 종자에는 인물성격과 구성, 생활 등 작품을 이룰 형상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반 요인들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식물의 종자가 극히 작은 알맹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종자는 간단명료하게 표현되면서도 뜻깊고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자가 작품에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된다는 것은 종자 안에 모든 형상의 요소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자라날 수 있는 모체로, 터전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흔히 생활의 진리나 투쟁의 원리 같은 것을 경구와도 같이 고도로 압축되고 집약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종자가 예술적 형상의 창조를 힘있게 담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보자.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종자는 1930년대 우리 나라 사회현실과 생활의 진리를 집약적으로 뚜렷이 표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힘을 가진 문학예술작품에 고유한 질적 속성이다. 인류문예사는 사상적 핵이 뚜렷한 문학예술작품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낡은 투구와 갑옷으로써는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울 수 없다는 것을 사상적 알맹이로 하고 있는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 사 랑보다 더 귀중한 것은 동료들에 대한 의리라는 것을 핵으로 하고 있는 스펜달의 중편소설 <바니나 바니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친혈육들 사이에도 금전관계 외에는 그 어떤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상적 알맹이로 하고 있는 발자크의 장편소설 <고리오영감>, 개인은 죽일 수 있어도 인류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핵으로 하고 있는 헤밍웨이의 장

편소설 <가진자와 못 가진자>...

문제는 작품의 종자를 얼마나 정확히 규정하는가 하는 데 있다. 종자를 정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작품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밝혀 낸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되는 것이 종자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작품을 옮겨 분석평가하는 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작품을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이론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있으며 이 이론이 문학예술작품창작을 힘있게 추동하는 창조적 이론으로 되는 주요한 근거가 있다.